

# 광양경제구역 용강그린·신대단지 지정 해제

오늘부터 규제 풀려  
주민 재산권 행사  
광양복합업무단지  
면적도 0.44km<sup>2</sup> 줄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용강그린테크밸리(2.01km<sup>2</sup>), 신대휴먼그린단지(2.33km<sup>2</sup>) 등 2개 단지의 지정이 해제되고, 광양복합업무단지의 면적이 기존 4.87km<sup>2</sup>에서 4.43km<sup>2</sup>로 0.44km<sup>2</sup> 줄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는 기존 23개에서 21개로, 전체 면적은 83.58km<sup>2</sup>에서 77.71km<sup>2</sup>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전국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5일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지정 해제 의제’ 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3년 내에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도록 법이 고쳐진 것이다.

장기간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켜 민원을 줄이는 한편 남은 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정 해제 대상은 14개 지구다. 이 중 10곳은 전체 면적이 해제됐고, 4곳은 일부가 해제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36.7km<sup>2</sup>이 해제돼 가장 큰 폭으로 면적이 축소됐으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역시 29.38km<sup>2</sup>의 면적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에서 88개 지구로 줄어들고, 면적은 428.37km<sup>2</sup>에서 335.84km<sup>2</sup>로 21.6%가 감소했다. 지정이 해제된 곳은 지역 주민이 건축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 비상

특수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국내유입에 대비해 검사 및 처리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연합뉴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4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질병관리본부

물을 새로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

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양만권 5개 지구 23개 단지 가운데 9개 단지에 대해 50% 이상의 국공유지 소유, 공유수면 매립,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 등의 요건에 해당된다며 지정 해제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광양만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예상한 대로 면적이 줄어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세월호 진상 규명이 우선 김기춘 등 청문회 나와야”

가족대책위 촉구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최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피해자 지원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진상규명 방안을 내놓지 않을 거라면 배상과 보상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증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무산됐다”며 “진상 규명에 필요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은 모두 증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들은 22일째 단식중인 광화문광장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역없는 진상 규명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금품수수 혐의 현역의원 4명 검찰 조사

새누리 조현룡·박상은, 새정치 신계륜·김재윤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일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출처 불명의 문치돈이 발견된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이 금품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는 지난 2012년 11월 11일 10시 10분 이후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우현)는 금품을 전달한 운전기사와 측근을 체포했다가 지난 1일 밤 늦게 풀어 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을 소환 조사한 이후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수수한 액수가 1억원을 훌쩍 넘는 데다 의정활동을 통해 청탁을 들어주는 등 범죄 혐의가 짙어졌다고 중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오는 19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당사 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가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3000만원과 박 의원 장남 집에서 압수한 6억원의 문치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를 둘러싼 횡령·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김재윤)도 4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해 이번주 소환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신계륜·김재윤 의원의 보좌관 지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해당 보좌관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전달 혐의보다는 증거수집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또다른 의원 1명의 금품수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담보가치 없는 공장·임야에 보조금 25억 부당집행

감사원, 영광군청 공무원·업체 대표 등 8명 검찰 고발

감독 당국의 업무 태만 등으로 민간 업체가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쳐 빼돌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 4월 수도권에서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B민간업체에 대

해 총 20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A씨는 이 업체 사장이 임차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물로서 가치가 없는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청탁하자 이를 수용, 5억7000만원을 부당

하게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듬해 3월 이 업체가 시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근저당이 설정돼 담보가치가 없는 임야를 담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역시 부풀려졌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15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근무한 부서의 과장 등은 결재과

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담보물에 문제가 없다는 A씨의 말만 믿은채 총 20억7000만원의 지원금을 그대로 내주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B업체 대표는 이 돈으로 기존 공장 직원들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청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공무원과 B업체 대표 등 범죄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영광군수에게는 A씨를 포함한 영광군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립대총장에 김왕복씨



행정학 석사,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교육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 21회로 목포대·강원대 사무

국장, 광주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감사관·교육자치지원국장을 거쳐 교원소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2010년 1월부터 3년3개월간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한 바 있다.

김 총장은 담양 출신으로 광주일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목포대·강원대 사무국장, 광주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감사관·교육자치지원국장을 거쳐 교원소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특히 2010년 1월부터 3년3개월간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점: SIEMENS  
BNC빌딩 수형, 약림빌딩5층 501호, 동행(문선지점), 마바들길2차점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